

근대적인 자이나교 공동체의 형성: 성지 소유권 공방에 대한 고찰*

구 하 원

(한국외국어대 남아시아연구소)

1. 머리말

인도사 연구에서 시대를 구분하는 방식과 근대의 시작 기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많은 연구가 근대성(modernity)과 이를 반영하는 정치제도나 경제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나 체제를 받아들이는데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Re-Formation of Identity: The 19th-century Jain Pilgrimage Site of Shatrunjaya, Gujarat” 중 샤프룬자야의 소유권 공방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번역하여 발전시킨 것이다. 이 내용 중 일부는 “Legal Cases of Shatrunjaya: Shaping Jain Identity During the 19th Century”라는 제목으로 다음 워크샵에서 발표할 바 있다. “자이나교도들과 영국(The Jaina and the British: Collaboration and Conflict, Concealment and Contribution during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튀빙엔대학(University of Tübingen) 아시아 연구소(Institute of Asian and Oriental Studies) 주최 국제 워크샵, 2010년 2월 19~20일.

주 제 어: 근대, 역사, 종교, 식민 통치, 인도, 남아시아, 정체성, 자이나교, 소유권
Modern, History, Religion, Colonialism, India, South Asia, Identity, Jainism, Ownership

기반이 되는 근대적인(또는 서구적인) 사상, 역사관과 종교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짚어보는 것은 보다 어려운 일이다. 구체적인 사료가 충분히 남지 않거나, 하나의 사건이나 정책으로 뚜렷이 족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¹⁾ 또한, 근대 국민 국가(modern nation-state)가 일어나고 국가가 역사 및 종교와 관련된 제반사상을 “결정하고 집대성하며 통제하고 서술”하는 주체로 부상하면서(Cohn 1996: 3) 국민 국가의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상에 대한 연구를 상대적으로 통제하는 양상도 보여왔다. 특히 식민 통치와 종교에 따른 분립을 경험하면서 남아시아의 학계는 종교 공동체에 관한 한 주로 힌두교와 이슬람 두 종교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²⁾ 이 논문은 인도의 소수 종교 중 하나인 자이나교의 근대적인 성장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자이나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지를 둘러싼 일련의 법정 공방을 통해 자이나교도들이 능동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근대적인 종교관을 정착시킨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현재 자이나교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인도 북부의 신상승배 백의파 자이나교도(Śvetāmbara Mūrtipujak Jain)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수의 연구자만이 공의파 또는 인도 남부의 자이나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³⁾ 자이나교 내에서 이와 같이 연구가 편중된 현상은 식민 통치하 유럽 학자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19세기 유럽의 인

1) 근대 남아시아사에서 사상과 개념에 집중한 예로 구하의 영구정액제(永久定額制: Permanent Settlement) 연구를 들 수 있다. (Guha, 1996).

2) 일레로 듀몽의 연구를 들 수 있다(Dumont 1980: 314-34).

3) 인도에서 자이나교는 전 인구의 0.5%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부유한 신도계층으로 인해 매우 위상이 높다. 자이나교도들은 일반적으로 백의파(白衣派: Śvetāmbara)와 공의파(空衣派: Digambara)로 나뉘며, 백의파는 자이나교의 스승인 지나(Jina)의 신상을 숭배하는 신상승배파(Mūrtipujak)와 이를 거부하는 파(Sthānakavāsi)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각 종파 내에서도 승려들의 계보(gaccha)나 지역, 카스트에 따라 하위 종파를 나눌 수 있으나 교리의 차이는 크지 않다. 현재 수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인도 북서부에 거주하는 자이나교도들은 대부분 신상승배 백의파 자이나교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Shah 1998: 75).

4)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 학자들이 자이나교를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알기 위해 플뤼

도학자(Indologist)들은 인도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자이나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의 경전도 소장하였던 자이나교 사원의 수장고(bhaṇḍāra)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로로 수집된 자이나 경전은 대부분 백의파 경전이었으며, 유럽 학자들이 접촉하였던 자이나 승려들 역시 백의파 승려들이 대부분이었다.⁵⁾ 그러나 백의파에 연구가 편중된 현상이 단지 서구 학자들(그리고 후대 인도학자들)의 연구 때문이라고만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19세기 이후 인도의 자이나교도들 중 신상승배 백의파 신도들의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후반 이후 자이나교의 젊은 승려들과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자이나 경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으며(Cort 1992: 182-184), 자이나교의 악습을 타파하고 승려들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평신도들을 위한 새로운 경배의식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Cort 2001: 327-49; Flügel 1995: 117-76). 이와 같이 자이나교가 근대적인 종교로 변천하는 모습은 문헌이나 공식적인 기록보다, 신상승배 백의파에게 가장 중요한 성지인 샤페트룬자야(Śātruñjaya)의 변화에서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2. 샤페트룬자야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변화

2.1. 샤페트룬자야에 대한 자이나교도들의 인식

인도 구자라트주(Gujarat)에 위치한 샤페트룬자야는 인도의 신상승배 백의파 자이나교도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산 중 하나이다. 수천 년 전 자이나교 최초의 스승이 샤페트룬자야를 방문하여 첫 설법을 하였다는 믿음에 따라 자

겔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Flügel 1999: 1-11).

- 5) 코트에 의하면 유럽인들에게 자이나교를 본격적으로 소개한 게오르그 뵐러(Georg Bühler)는 단 한 명의 신상승배 백의파 승려에게 받은 목록을 가지고 자이나교의 ‘정통 경전(āgāma)’ 45개의 목록을 정리하였다. 이는 오늘날까지 자이나교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들로 꼽히고 있다(Cort 1992: 172).

이나교도들은 이 산에 사원을 짓고 신상을 봉헌하였다. 전통적으로 무소유의 계율과 유랑승 전통을 따르던 승려들보다 평신도들이 샤프룬자야를 관리하고 유지하였다. 그리하여 해발 600미터가 조금 넘는 산꼭대기에는 현재 150개가 넘는 사원이 빼곡하게 지어져 하나의 사원 도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샤프룬자야가 사원으로 뒤덮인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한 것은 불과 백여 년 전의 일이었다.⁶⁾ 현존하는 사원 중 2/3 이상이 19세기에 새로 지어졌으며, 이 기간을 통해 성지를 논의하는 글(Burgess 1869: 3-27)이나 이를 그린 천그림의 성격 역시 변화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19세기 이후 샤프룬자야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법정 소송과 깊은 관련이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샤프룬자야와 관련된 첫 소송은 봄베이의 자이나 상인 모티찬드 아미찬드(Motichand Amichand)가 영국총독에게 올린 청원서에서 비롯되었다. 청원서에서 모티찬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샤프룬자야를 둘러싼 지역인 팔리타나(Palitāṇā)를 다스리는 토후(土侯)였던 타쿠르(Thakur)를 고소하였다.⁷⁾ 이 사건은 빠르게 종결되었으나, 이후 100여 년간 자이나교도들과 팔리타나의 타쿠르 사이에 성지의 소유권 문제까지 포함하여 여러 차례 소송이 오고갔다.

샤프룬자야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법정 소송들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자이나교도들뿐 아니라 인도 전역과 영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며 진행된 소송들은⁸⁾ 결국 인도 서부 신상승배 백의파 자이나교도의 공동체가

6) 샤프룬자야의 소유권 분쟁 외에 성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논의한 내용으로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2장에서 5장 참조(Ku Kim 2007: 25-169).

7) 타쿠르(Thakur)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18세기 이후 마하라자와 라자보다 낮은 토후의 칭호로 사용되었다. 팔리타나 타쿠르의 경우 일반 타쿠르보다 지위가 높은 ‘타쿠르 사헵(Thakur Sahab)’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8) 1926년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을 때 자이나교도들과 타쿠르간의 공방은 인도 신문뿐 아니라 인도와 영국에서 출간되는 영문 신문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었다. 예를 들어 『봄베이 사마차르(The Bombay Samachar)』는 “자이나 성지 샤프룬자야에 대한 습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었다. 『봄베이 크로니컬(The Bombay Chronicle)』이나 『인디아 타임즈(The India Times)』, 『잉글리쉬맨(The Englishman)』(켈커타), 『파이오니어(Pioneer)』(알라하바드), 『타임(Time)』(런던) 등도 이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었다. 이로 인해

형성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샤프룬자야를 둘러싼 소송의 초점이 소유권의 정의와 권리의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자이나교도들은 이와 관련된 서구 개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근대적인 자산(property)이나 역사·종교와 같은 개념은 서구의 사회체제에서 일어나고 발달한 개념이었다. 자이나교도들은 소송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러한 개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으나 그 이질적인 성격으로 인해 결국 샤프룬자야와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만 하였다. 결과적으로 근대 자이나교는 인도 내에 수많은 종파와 파벌이 존재하였음에 불구하고 샤프룬자야라는 핵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게 되었다.⁹⁾ 이와 같은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샤프룬자야의 소유권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2. 무굴 제국과 샤프룬자야

자이나교의 전통적인 문헌에서 샤프룬자야는 설화나 시, 고승과 위인 전기 등의 문학 작품에 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글은 성지의 역사를 서술하며 그 신성함을 찬양하는 관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¹⁰⁾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등 샤프룬자야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 중 가장

영국 관료들은 자이나교도들이 신문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자이나교도들에게 유리하게 서술한 기사와 논평 외에도 봄베이와 같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집회와 반드(bandh: 파업)가 계획되어 타쿠르 편을 든 영국 정부를 비판하였다(Desai 1983: 318).

- 9) 루이틀레-하텐부르크에 의하면 인도 서부의 백의파 자이나교도들은 샤프룬자야와 같은 성지로 순례를 같이 떠남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였다. 현재 팔리타나에는 120여 개의 다람살라(dharamshala: 순례자를 위한 숙소)가 있으며, 이들은 순례자의 출신 지역과 카스트, 그리고 순례자가 따르는 승려의 가차(gaccha: 계보)나 사무디(samuday: 학파)에 따라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루이틀레는 이와 같은 다람살라들이 샤프룬자야에 순례를 온 자이나교도들의 카스트 및 종파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샤프룬자야라는 성지를 찾기 위해 산을 오르고 예배를 올리는 공통적인 체험을 통해 백의파 자이나교도로서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된다고 하였다(Luithle-Hardenberg 2009: 331-360).

이른 예는 무굴 제국의 칙령(farman)에서야 처음 찾을 수 있다. 자이나교도와 그들의 성지에 대해 언급한 무굴 칙령은 모두 열 두 개가 남아 있으며, 아크바르부터 오랑제브에 이르기까지 다섯 명의 황제가 내린 것이었다.¹¹⁾

이와 같은 칙령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한 개의 칙령을 제외하고, 모든 칙령은 무굴 황제들의 관대함을 주로 칭송하는 내용과 함께 샤프트룬자야를 하사한다는 사실을 매우 간결하게 적고 있다. 후대의 칙령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이는 실제 땅이나 소유권을 하사한 것이 아니라 다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inam)를 하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무굴 황제가 평시의 녹봉체제에서 벗어나 성지나 지역을 개인에게 하사한 경우는 무굴 제국사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 대체로 이러한 특전은 황제에게 물질적·정신적 공로를 바친 자에 한정되었다. 예를 들어, 아크바르는 자신의 궁정에서 설법을 하였던 자이나 승려 히라비자야수리(Hiravijayasuri)에게 샤프트룬자야와 함께 여러 성지를 하사하였다(Commissariat 1941: 146-158). 오랑제브 등은 아마다바드(Ahmadabad)의 나가르세트(nagarśeth: 상인 조합 우두머리)로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던 샨티다스 자베리(Shantidas Jhaveri)에게 샤프트룬자야를 포함하는 성지를 하사하였다(Commissariat 1931: 53-78). 이 때 황제들은 승려와 상인 개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성지를 하사한 것이었다.¹²⁾ 또한 자이나교도들은 각 칙령이 영속적임에 불

10) 샤프트룬자야에 대해 가장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자이나 문헌은 『샤프트룬자야의 신성』(Śatruñjaya Mahatmya)이나 『성지 순례 이야기』(Vividha Tirtha Kalpa)이다. 『샤프트룬자야의 신성』은 자이나교의 마지막 스승인 마하비라(Mahavira)가 지었다고 하며 421년 구자라트의 승려 다네슈바르수리(Dhaneśvarsuri)가 줄여서 서술하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현재 전해지는 판본은 14세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되며 『성지 순례 이야기』 역시 14세기의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다(Cort 1990: 245-290; Granoff 1999: 147).

11) 열두 개의 칙령은 아크바르와 자한기르, 샤자한, 무랏 박슈(샤자한의 아들이자 1658~1659년 사이에 스스로 황제임을 선포하였다), 오랑제브가 내린 것이었다. 현재 이 칙령의 원본들은 모두 구자라트주의 주도(州都) 아마다바드(Ahmadabad)에 위치한 샤프트룬자야 관리재단인 세트 아난지 칼얀지 페디(Śeth Ānandji Kalyāñji Peḍh)에 보관되어 있다. “Appendix B. Sanads of the Moghal Emperors.” IOR L/PS/10/1100.

12) 이는 자이나교도들에게만 한정된 특전이 아니었다. “왕궁에 초청받은” 시바파 수행

구하고 새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새로운 칙령을 선포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¹³⁾ 이는 왕위 상속 전쟁이 빈번하였던 현실 정치를 고려하였을 때 반드시 필요하였던 행위로 여겨진 듯하며, 후의 칙령을 통해 무굴 황제들이 지속적으로 자이나교도들을 후원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볼 수 있다.¹⁴⁾ 그러나 무굴 황제들의 반복된 확약에 불구하고, 샤프트룬자야는 17세기 이후부터 또 다른 세력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2.3. 지방 토후와 샤프트룬자야

팔리타나 타쿠르, 즉 팔리타나의 토후(土侯)는 메와르(Mewar) 지역을 다스리던 시소디아족(Sisodias)의 방계로서 고흐일 라즈푸트족(Gohil Rajput) 출신이었다. 1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계보에 불구하고, 이들은 17세기에야 팔리타나 근처로 이주하여 지방 자민다르(zamindar: 地主)로 정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⁵⁾ 이후 무굴 제국에 저항하며 일어난 마라타 왕조들이 인도

자 역시 영지를 하사받았으며 “[하사받은] 땅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왕조의 영속함을 위해 기도”를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Richards 1993: 92).

- 13) 산티다스 자베리는 새로 등극할 때마다 기록을 위해 새로운 칙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랏 박슈나 오랑제브의 칙령에 의하면 “샤프티다스[sic]와 그의 후손들에게 이미 상왕대에 내린 칙령의 내용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나 “[산티다스가] 나에게 영광스러운 칙령을 다시 선포하기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Appendix B.” IOR L/PS/10/1100.
- 14) 실제로 자이나교도들이 왕위 계승전쟁에서 패한 측에 자금을 댄 경우에도 이러한 칙령을 다시 내린 예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랑제브가 형인 무랏 박슈를 물리치고 황제로 등극한 후 산티다스는 오랑제브에게 무랏 박슈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달라고 상소를 올렸으며 오랑제브는 이를 두 차례에 걸쳐 상환하였다. “Appendix B.” IOR L/PS/10/1100.
- 15) (Government of Gujarat, 1969: 602). 메와르의 시소디아족은 인도 서북부를 다스리던 힌두 라즈푸트 왕족들 중 가장 강력한 왕조를 이루었으며 무굴 제국에 마지막까지 항거하였다. 그리하여 무굴 제국에 정복된 이후에도 다른 라즈푸트 왕조에 비해 정치적 자유를 상당부분 보장받았으며 후대 라즈푸트족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왕조로 꼽혔다. 팔리타나의 타쿠르들뿐 아니라 아마다바드의 나가르세트이자 후대 타쿠르

서부 지역을 장악함에 따라 타쿠르들은 팔리타나에 대한 지배권을 세습하게 되었으며, 영국 식민치하에서 카티아와르 주재관(Political Agency of Kathiawar)이 설립되면서 토후로 인정받았다.¹⁶⁾

자이나교도들과 타쿠르 사이의 관계는 무굴 제국 치하였던 1651년에 작성된 문서에서 처음 엿볼 수 있다. 이때 타쿠르 고타 칸다지 2세(또는 3세, Gohil Kandhaji II or III)는 자이나교도들과 계약을 맺어 샤프룬자야 산 정상 사원과 자이나교도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대신 일정금액을 받겠다고 하였다. 순례자들은 불살생(ahimsā)이라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했기 때문에 강도와 마적에게 쉽게 희생되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양측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이후 19세기까지 타쿠르와 자이나교도의 관계를 반영하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후대 기록에 의하면 금전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양측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1809년 타쿠르 우나드지(Unadji, 1820까지 재위)는 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신의 전 영토를 아마다바드의 나가르세트에게 임대하였으며, 이러한 임대차 관계는 1843년 우나드지의 손자가 모든 빚을 청산한 후에야 해지되었다.¹⁸⁾ 샤프룬

와 정면대결을 벌일 산티다스의 후손들 역시 스스로 시소디아족의 후손들이라고 한 것은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16) 워커 대령의 조정안(Colonel Walker's Settlement of Kathiawar Tributaries, 1807)에 따르면 카티아와르 반도의 왕조들은 모두 바로다 왕국(現 바도다라를 수도로 하는 마라타 왕조)에 공물을 바치는 속국이였다. Campbell, 1989, 423. 카티아와르 주재관은 1863년까지 바로다에 근무하며 바로다와 바로다의 속국(팔리타나 포함)까지 관장하였다 (*Gazetteer of the Bombay Presidency*, 1884: 314).

17) 이 문서에 따르면, 타쿠르는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성스러운 샤프룬자야에 대해 초키 포라(Chowkce Pora: 문을 지킴)를 행하며 또한 승가(Sungh: 회중; 자이나교에서는 순례를 떠나는 모든 신도들을 일시적으로나마 승가sanghe에 포함시킨다.)에 대해서도 초키 포라를 행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댓가로 산티다스 세스쿠른(Santidas Seskurn: 상인들의 우두머리 산티다스)과 루트나 수라(Rutna Sura: 승려들의 우두머리 라트나), 그리고 회중 전체가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Appendix D. Engagement of 1651 A.D.” IOR L/PS/10/1100.

18) 18세기부터 마라타 왕조들 사이에 분쟁이 잦아지면서 팔리타나의 타쿠르 역시 이에

자야의 사원 건축과 후원의 역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19세기에 신축된 사원들은 대부분 1820년에서 1840년 사이에 지어졌다. 이와 같이 자이나교도들이 샤프트룬자야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정치적·경제적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사원 건축과 후원이 크게 흥성할 수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4. 영국총독부¹⁹⁾와 샤프트룬자야

영국 총독부가 자이나교도들과 타쿠르 사이의 공방에 처음 휩쓸린 것은 1820년이였다. 이때, 모티찬드 아미찬드, 또는 모티샤(Motiśāh)라 불린 자이나 거상(巨商)이 봄베이 정부에 샤프트룬자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처음으로 제출하였다. 모티샤는 당시 봄베이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 중 한 명으로 꼽혔으며, 후에 샤프트룬자야에 모티샤 툽크(Motiśāh Ṭunk)라고 하는 사원군(寺院群)을 지어 봉헌하기도 하였다. 이 청원서에 의하면, 타쿠르가 자이나교도들을 보호하는 명목의 세금을 인상하려고 하며, 이에 불구하

휩쓸려 재정적으로 많은 지출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타쿠르는 19세기 초 자신의 영토를 모두 임대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 아마다바드의 나가르세트는 바캇찬드 쿠샬찬드(Vakhatchand Khushalchand)였으며, 산티다스 자베리의 증손자였다. 두 사람 사이의 임대조건을 보았을 때 바캇찬드는 타쿠르의 영토를 사용하는 대신 매년 42,001루피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이후 타쿠르의 영토에서 바캇찬드가 거둬들인 세금은 매년 20만루피를 넘는 막대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J.B. Peile, "Letter from J.B. Peile, Esq., Political Agent Kattywar, to C. Gonne, Esq., Secretary to Government Political Department, Bombay, No. 5 of 1876, dated 6th January 1876." (*The Palitana Jain Case* 1926: 70).

- 19) 이 당시 샤프트룬자야를 포함하는 카티아와르 반도(Kathiawar Peninsular)와 구자라트, 라자스탄 등은 봄베이 총독(Governor-General of Bombay Presidency)의 관할지역이었다. 봄베이 총독은 관할 지역에서 직할령(봄베이와 아마다바드 등의 대도시와 마라타 영토 일부)을 다스렸으며 보호령(토후국, Princely States)에는 주재관(Political Agency)을 파견하여 군사와 외교 부문만을 간섭하고 있었다. 1863년까지 카티아와르 주재관은 바로다에 근무하며 바로다와 바로다의 속국(팔리타나 포함)까지 관장하고 있었다(*Gazetteer of the Bombay Presidency* 1884: 314).

고 타쿠르가 산 정상에 배치한 아랍 군인들의 행태가 매우 불량하여 자이나교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였다.²⁰⁾

우선 이 청원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타쿠르가 자신의 영토를 모두 임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이나교도들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따로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모티샤는 청원서를 통하여 영국측에 무굴 황제가 전통적으로 보장하여준 권리, 즉 자이나교도들이 세금이나 다른 명목으로 주변 토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켜 주도록 청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타쿠르는 전통적으로 타쿠르들이 보호 대금을 거두어 왔으며, 자이나교도들을 지키기 위하여 샤프룬자야에 용병을 배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²¹⁾ 결국 1821년에 양측이 보호 대금에 대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자이나교도들은 보호 대금 명목으로 매년 4500루피씩 10년 동안 타쿠르에게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대신 10년 후 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21년의 합의문과 영국 무관들의 기록을 통해 타쿠르와 자이나교도들, 그리고 영국측 등 당시 관계자들이 샤프룬자야라는 성지와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알 수 있다. 타쿠르는 세금을 부과하고 군을 통솔하는 권리를 지닌 세습군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부각하였다. 이 지위로 인해 타쿠르는 샤프룬자야에 순례를 오는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자이나교도들은 팔리타나 지역에서 무굴 제국의 영향력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굴 황제들이 아마다바드 나가르세트에게 하사한 성지로서 샤프룬자야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타쿠르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자이나교도들은 인도 서부에서 가장 높은 권한을 가진 봄베이의 총독에게 직접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무굴 제국 치하

20) 1820년의 임대차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이 소송의 원본 역시 현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타쿠르의 대응도 후대의 기록을 통해서만 알려져 있다. 이러한 기록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던 영국인 무관들이 남긴 것이었다. 다른 기록에 의하면 ‘아랍군인’을 ‘세포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들 군인들의 출신지는 분명치 않으나, 아마도 타쿠르가 고용하여 샤프룬자야를 지키던 무슬림 용병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21) E. T. Candy, “Mr. Candy’s Report.” (*The Palitana Jain Case* 1926: 6).

에서 지방 총독이나 영주에게 가기보다 황제에게 직접 상소하였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행위였다. 자이나교도들은 영국총독부가 무굴 제국의 권위를 인정하며 받아들인 것 같이(Bose & Jalal 1998: 58) 샤프룬자야에 대해서도 무굴 황제들과 유사한 입장을 취하리라고 여겼을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타쿠르와 같은 토후들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 역시 영국인들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꿰뚫어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영국 총독부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무굴 황제를 대신하고픈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봄베이 총독부는 아무런 언급 없이 사건을 카티아와르 주재관에게 넘겼다. 카티아와르 주재관 역시 직접 결정을 내리기보다 팔리타나 타쿠르의 대군주인 바로다의 개크와르(Gackwad)에게 압력을 가하며 개크와르가 사태를 해결하도록 권하였을 뿐이었다.²²⁾

이와 같이 1821년 합의문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타쿠르뿐 아니라 자이나교도들도 영국측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영국의 지원과 묵인하에서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타쿠르는 스스로의 행위에서 ‘원주민 폭군(native despot)’의 모습이 보인다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였을 것이다. 군주 본연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게 된 것이었다. 반면에 자이나교도들은 영국 총독부가 무굴 황제들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단순히 한 명의(또는 한 무리의) 자이나교도가 총독부에 재정적 지원이나 충성을 바친다고 해서 총독부가 샤프룬자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였다. 샤프룬자야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식민통치자들의 언어’(Dirks 1992: 202)로 해결되어야

22) 카티아와르 지역의 속국을 정리하여 확정한 워커 대령의 보고서(1807)에 의하면, 이들 속국의 토후들은 바로다의 개크와르(Gackwad of Baroda)에게 정치적으로 복속되어 있었으며 개크와르에게 매년 공물을 바쳤다. 이에 상응하여 개크와르는 토후들의 정치적 권리와 세습권을 인정하였다(Campbell 1989: 423). 개크와르를 주군으로 인정하는 경향은 1863년 카티아와르 주재관 키턴즈 대령이 토후들은 권한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눌 때까지 계속되었다. 1863년 팔리타나는 2등급 토후로 분류되었으며, 1925년에 토후 등급이 폐지되었을 때 타쿠르는 다른 총포국(Salute State)과 함께 인도 총독(Viceroy)이 직접 다스리는 행정구역으로 재편되었다(Mehra 1928: 1, 11).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후의 논쟁에서 양측 모두 접근방식을 바꾸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3. 샤프룬자야의 소유권

3.1. 소유권의 정의

1820년에 제출한 청원서 문건과 타쿠르의 반박 문건에서는 샤프룬자야의 소유권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21년의 합의 문에서도 보호 대금에 대한 내용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샤프룬자야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전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소유자가 가진 권리에 대한 논의도 부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샤프룬자야 소유권의 문제는 40년 후인 1861년에야 등장하였다. 타쿠르 수르싱지(Sursinghi, 1860~1885 재위)는 1860년 즉위하면서 자이나교도들에게 보호 대금(Protection fee)이라는 명목 대신 순례세금(pilgrimage tax)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샤프룬자야가 자신의 영토 안에 있으므로 자이나교도들이 샤프룬자야에 새로운 사원을 지을 때마다 토지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샤프룬자야] 산이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The Palitana Jain Case* 1926: 11). 이를 통해 타쿠르가 당시 식민 치하 위계질서에서 자신의 지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타쿠르는 토후국을 다스리는 군주로서 자신이 팔리타나 내에서 민사·형사상 최고 권위를 지니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영국총독부가 1863년 타쿠르를 2등급 토후로 지정하면서 더욱 부각되었다. 결국 카티아와르 주재관 키턴즈 대령은 1863년 이와 같은 타쿠르의 정치적 지위를 고려하면서도 “매우 큰 영향력을 지닌 종파[자이나교]의 감정”을 배려하여 자이나교도들이 ‘순례세금’으로 매년 일만 루피만을 지불하도록 결정을 내렸다.²³⁾ 그러나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구체적인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샤프룬자야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우선 자이나교도들은 새로운 사원을 지을 때마다 타쿠르의 허가를 받고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에 반대하여 수많은 청원서를 올렸다. 자이나교도들은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들며 샤프룬자야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무굴 황제들이 내린 칙령에 따라 샤프룬자야가 자이나 상인 산티다스에게 이미 하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는 1821년 합의문에서 타쿠르가 보호 대금만을 받기로 하였다는 항목으로, 이로써 타쿠르도 자신이 샤프룬자야에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것이었다.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때 자이나교도들은 무굴 제국과는 다른 영국 식민통치 체제의 특성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막연한 전설이나 일화 대신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875년 라즈코트(Rajkot)에서 샤프룬자야의 소유권과 지불 대금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을 때, 산티다스의 후손들이 소장하고 있던 무굴 황제의 칙령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샤프룬자야에 대한 자이나교도들의 소유권을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전문증인으로 두 명의 자이나 승려를 출석시켰다(Desai 1983: 17-20).

양측의 청원서와 증거로 제시한 문헌과 증언을 모두 검토한 후 카티아와 르 주재관의 사법 보좌관 서리(Acting Judicial Assistant) 캔디(E. T. Candy)가 1875년 62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준비하였다. 보고서 내용에서 캔디는 우선 샤프룬자야의 경계라고 볼 수 있는 ‘툭크(tunk: 사원군)’의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다.²⁴⁾ 툭크가 일개 사원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사원

23) R. H. Keatinge, “Report under date 15th April 1863 No. 1146.” (*The Palitana Jain Case* 1926: 146)

24) 툭크는 샤프룬자야의 사원들을 구분할 때 사용하는 구자라티어 단어로, enclosure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사원군(寺院群)’으로 번역하였다. 샤프룬자야는 일반적으로 아홉 개의 툭크로 구분되며, 각각의 툭크는 하나의 주 사원과 이를 둘러싼

과 이를 둘러싼 회랑을 포함하는 사원군을 뜻하는지, 또는 모든 사원이 지어진 샤프룬자야산 정상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인 ‘구드(gudh: 요새)’를 의미하는지 논쟁이 일어났다(*The Palitana Jain Case* 1926: 16). 결국 캔디는 샤프룬자야 산 정상에 요새 안의 땅은 자이나교도들의 소유라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므로 자이나교도들이 요새 안에 새로운 사원을 짓는 경우 타쿠르에게 땅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샤프룬자야 산 위라도 요새 밖에 사원을 짓는 경우 타쿠르에게 땅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캔디는 역사적인 맥락을 분석한 후 ‘소유권’의 정의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캔디에 의하면 샤프룬자야의 소유권이 자이나교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였다. 그러나 캔디는 이러한 소유권이 무굴 제국의 칙령이나 다른 계약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이나교도들이 오래전부터 오늘날까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샤프룬자야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²⁵⁾ 즉 샤프룬자야 산이 타쿠르의 영토 내에 있음에 불구하고 타쿠르는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팔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캔디에 의하면 군주(sovereign)로서 타쿠르는 자신의 영토를 통과하는 순례자들에게(도로 및 시설 이용료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²⁶⁾ 결국 자이나교도들은 요새 안의 땅에 대한 모든 권

회랑, 그리고 중정(中庭)에 독립적으로 세워진 여러 채의 작은 사원으로 구성된다.

25) 이는 1793년 콘월리스(Cornwallis) 총독이 벵골에서 시행한 영구정액제(永久定額制: Permanent Settlement)에서 토지의 소유주를 구별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이었다. 콘월리스의 정책에 따르면 토지 소유주는 토지를 실제로 이용하는 자(즉 직접 경작하는 자)로, 이와 같이 소유주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 부재지주의 등장을 가져왔으며 농민을 유럽 중세봉건 제도 치하의 농노 신분으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구정액제에 대해서는 Guha, 1996 참조.

26) 캔디에 의하면 타쿠르는 “이 지역의 군주로서 자신의 영토 내에서 세금을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독 직할령인] 봄베이 시당국이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는 것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쿠르 역시 건축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The Palitana Jain Case* 1926: 60).

리를 받은 대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캔디의 의견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리고 타쿠르는 이에 힘입어 1886년에 이후 40년간 순례자들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15,000 루피를 받기로 합의하였다.

3.2. 소유권을 둘러싼 최후의 소송

1886에 합의한 바에 따라 자이나교도들은 40년 후인 1926년에 타쿠르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했다. 이를 위하여 양측은 수년전부터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²⁷⁾, 자이나교도들은 특히 자신들을 대변할 기구로서 세트 아난지 칼얀지 페디(Śeth Ānandji Kalyāñji Peḍhī: 이하 ‘페디’)라는 사단법인을 조직하였다. 타쿠르 바하두르싱지(Bahadursinghji, 1905~1947 재위) 역시 1925년 인도 서부 지역의 토후국 서열이 정비된 이후 총독부 주재관 왓슨(C. C. Watson)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위상과 권한을 확인하였다.²⁸⁾ 그리고 타쿠르는 1925년 재계약 초안을 작성하며 자이나교도들에게 매년 10만 루피의 순례자 세금을 내도록 책정하였다. 이는 이전의 15,000 루피에 비하여 거의 일곱 배 증가한 액수였다.²⁹⁾ 동시에 왓슨(C.

27) 예를 들어 자이나교도들은 1899년 카티아와르 주재관과 영국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이나교도들의 충성심을 증명하여주는 17통의 편지를 동봉하였다. 이 편지들은 영국 주재관들이 1757년에서 1857년 사이에 쓴 편지들로, 키턴즈 대령의 보고서 중에서 자이나교도들이 “영국 통치에 비협조적”이라는 내용에 반박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었다. “Memorial by the Managing Committee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heth Anandji presented to the Political Agent, Kathiawar, dated 30th January 1899,” IOR L/PS/10/1100. “Letter to His Excellency, The Right Honourable Rufus Daniel Isaacs, Viceroy and Governor-General of India in Council.” IOR L/PS/10/1100.

28) 1925년에 토후국들을 재정비하면서 팔리타나는 ‘9포 토후국(9-Gun Salute State)’의 지위를 부여받으며 총독(Viceroy)에게 직접 보고하는 토후국으로 승격하였다. 이는 당시 타쿠르 바하두르싱지가 영국측 인사들과 친분이 깊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하두르싱지는 기초 교육을 받은 후 18세부터 영국 슈스베리(Shewsbury)에서 군사교육을 받았다. 장교 임명을 받은 후 귀국하여 타쿠르로 재위하였으며 이와 같은 서구식 교육으로 인해 영국 통치 체제에도 밝았다. India Office Records L/PS/359.

C. Watson)은 자이나교도들의 의도적인 여론 조성을 비판하며 신문 등에 왜곡된 보도를 부추기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팔리타나 군주에게 이를 직접 제기할 것이며 영국 총독부까지 청원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촉구하였다.³⁰⁾

1925년의 초안은 자이나교도 공동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우선 자이나교도들은 엄청나게 증가한 액수의 세금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에 문제를 직접 제기하지 말라는 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펼쳤다. 즉 성지 샤프룬자야가 비록 팔리타나라는 토후국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곳에 순례를 가는 자이나교도들은 대부분 영국 직할령의 시민이기 때문에 영국 총독이(여왕의 대리인이자 최고 주권자로서) 중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³¹⁾ 그리하여 자이나교도들은 페디를 통하여 당시 총독 에드워드 어윈(Edward F. Irwin)에게 조직적으로 우편을 보내고 마침내 면담을 성사하여 왓슨을 직접 비판할 기회를 얻었다.³²⁾

29) 이 금액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다. 원래 타쿠르는 매년 일정액 대신 순례자들을 일일이 세어 일인당 2루피의 세금을 매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순례자들을 세는 방식과 세의 대상 등에 대해 이견이 일어나 결국 매년 같은 금액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10만 루피라는 금액은 팔리타나에서 가장 가까운 바우나가르(Bhavnagar) 기차역에서 내리는 승객수를 세어 환산한 금액이었다.

30) C. C. Watson, "Mr. Watson's Decision." 마지막 문단에서 왓슨은 자이나교도들에게 총독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의 의견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였다. 또한 다르바(Darbar: 팔리타나 타쿠르)의 주권을 인정하여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다면 타쿠르 역시 자이나 교도들에 대해 관대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하였다(*The Palitana Jain Case* 1926: 17).

31) 실제로 샤프룬자야로 순례를 떠나는 이들은 대부분 봄베이나 아마다바드, 수랏 등 영국직할령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부유한 자이나교도들이었다. 이는 당시 순례단의 구성에서도 볼 수 있는데, 1837년 샤프룬자야로 대순례단이 떠났을 때 주된 인원은 봄베이와 아마다바드에서 출발하였다.

32) 총독은 페디의 대표이자 샨티다스의 후손이었던 카스투르바이 랄바이(Kasturbhai Lalbhai)와 면담을 하였으며 카스투르바이는 1) 세금의 액수를 줄일 것과 2) 자이나교도들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카티아와르 주재관과 직접 대질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였다. "Letter of Glancy to Watson, dated 27-6-1927." India Office Records L/PS/10/1100.

그리고 페디는 1926년 7월 27일 인도 전역의 백의파 자이나교도들의 대표가 모두 모이는 전(全)인도 자이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페디는 샤프룬자야의 세금에 대하여 정당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자이나교도들이 순례를 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였다.³³⁾ 카티아와르 반도와 인도 서부에서 활동하였던 상인들은 전통적으로 군주들의 폭정에 항거하여 단식과 파업, 또는 이주를 하겠다는 위협으로 저항하였는데(Spodek 1971:366), 페디의 선언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자이나교도들에게 우호적인 신문들은 영국 측의 판결에 반대하는 사실을 계속 실었으며, 인도 서부의 무슬림들과 힌두교도들 역시 판결이 번복될 때까지 자신들의 성지에 순례를 가지 않기로 발표하였다.³⁴⁾ 샤프룬자야 순례를 거부하는 운동은 2년 간 지속되었다. 페디는 승려들과 여승들에게 이 운동을 지지해달라고 편지로 호소하며 평신도들이 당분간 순례를 자제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순례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독실한 신자들을 배려하여 한 후원자가 타쿠르의 영토에서 벗어나 샤프룬자야에서 35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카담기리(Kadamgiri)에 소(小)샤프룬자야를 지었다.³⁵⁾ 자이나교도 순례자들에게 전적으로

33) 자이나교도들은 이 때 “정의가 실현되고 세금(rakhopa)과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모든 회중이 중지 명령에 따를 것임”이라는 전보를 각지에 전달하였다. “Telegram of Kasturbhai Lalbhai, to Secretary of State for India, dated Ahmedabad 29th July 1926.” India Office Records IOR L/PS/10/1100.

34) “Letter of H.N. Pandya, President of Sabha of Rajkot, to Secretary of State of India, dated 15th August 1926.” India Office Records IOR L/PS/10/1100. 판드야의 편지에 의하면, 이날 라즈코트에서 회의가 열렸으며 회의 결과 모든 카스트의 힌두교도와 무슬림들 역시 샤프룬자야의 판결이 번복되기 전까지 성지 순례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였다. 그는 또한 회의에서 현재 인도의 자이나교도들이 처한 어려움을 진실되게 반영한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와 기타 일간지에 감사를 표했으며 “왔습 각하께서 이와 같은 일간지의 청렴함과 자이나공동체 일원들의 성격을 근거 없이 의심하며 매도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35) 카담기리(Kadamgiri)는 본래 샤프룬자야와 연관된 다섯 개의 작은 성지(*panca tirthi*) 중 하나였다. 즉 샤프룬자야에서 경배를 올린 후 시간이 남는 순례자들은 샤프룬자야를 크게 우요(右繞)하는 의미에서 이를 둘러싸고 있는 다섯 개의 자이나고 성지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다섯 개의 성지 중 1926년 카담기리 산 정상에 샤프룬자야의

의존하고 있던 팔리타나의 경제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마침내 총독이 관여하여 양측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자이나교도들은 샤프룬자야에 대한 전권을 소유하는 대신 35년간 매년 6만 루피라는 순례자 세금을 타쿠르에게 지불하게 되었다. 타쿠르는 이 협정에 따라 이 외에 순례자들에게 어떠한 세금도 부과하지 않으며 샤프룬자야 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체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대신 자이나교도들은 앞으로 또다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샤프룬자야를 다스리는 주권자인 타쿠르에게 직접 제기를 할 것이라는 조항을 받아들였다.³⁶⁾ 샤프룬자야 순례는 1928년 4월에 재개되었다. 자이나교도들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으나 동시에 타쿠르의 주권도 명목상 인정된 판결이었다.

3.3. 샤프룬자야 관리기구의 사단법인화

자이나교도들이 타쿠르 일가와 100여 년에 걸쳐 투쟁하는 중 가장 두드러진 양상은 셰트 아난지 칼얀지 페디의 성장이었다. 페디는 17세기부터 샤프룬자야의 관리를 담당한 조직으로 아마다바드 출신의 자이나 상인들로 구성되어왔다. 페디를 처음 이끌었던 이는 무굴 황제 자한기르와 샤자한, 오랑제브 치하에서 활동한 산티다스 자베리였으며, 이후 산티다스의 후손 중에서 아마다바드의 나가르세트가 페디의 수장 역할을 겸임하였다.³⁷⁾ 타쿠

사원들을 1/500으로 축소한 석조모형이 마련되어 시카라 위에 휘날리는 깃발까지 완벽하게 재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건축 후원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샤프룬자야의 주요 사원들, 즉 대-아디슈바라 사원(Main Adišvara Temple), 차우무크 사원(Caumukh Temple), 아드부지(Adbhutji) 등은 모두 카담기리에 모형으로 제작되었다.

- 36) "Agreement arrived at between His Highness the Thakore Saheb of Palitana as representing the Palitana Durbar, and Sheth Anandji Kalianji as representing the Swetamber Murtipujak Jain Community of India, Dated 26 June 1928." India Office Records IOR L/PS/10/1100.
- 37) 아마다바드에서 나가르세트(Nagarseth: '도시의 거상')가 공식적인 칭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이다. 무굴제국을 공격하며 인도 서부를 점령하던 마라타 군대가 1704년 아마다바드를 점령하였을 때, 산티다스 자베리의 손자 쿠샬찬드

르와의 분쟁이 심화되면서 페디는 1880년에 근대적인 정관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는 근대 자이나교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관을 마련함으로써 자이나교 자체나 인도 아대륙의 자이나교도들의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이나교도들이, 그리고 남들이 자이나교 공동체를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즉 자이나교도들로 이루어진 종교 공동체는 이제 합법적인 기구로 대변되었으며, 이 기구는 공동체로부터 공동체의 입장을 표명하고 협상을 벌일 권력을 부여받았던 것이다.

이 정관은 인도 아대륙에서 종교 기관을 위해 마련된 최초의 근대적인 정관이라고 할 수 있다.³⁸⁾ 정관에 의하면 페디의 권한은 신상승배 백의파 자이나교도로 이루어진 공동체로부터 도출된 권한이었다. 인도 서부 백의파 자이나교도를 대변하는 권한은 전통적으로 아마다바드의 나가르세트(이자 페디의 수장을 겸임하였던 산티다스의 후손)에게 있었다.³⁹⁾ 이는 17세기부터 무굴 황제와 같은 지배층과 협상하는 역할을 맡은 이가 바로 아마다바드

(Khushalchand)는 도시가 약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거액의 뇌물을 마라타 지휘관에게 바쳤다. 그리하여 아마다바드는 파괴를 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마다바드의 상인들은 종교의 차이를 떠나 쿠샬찬드와 그의 후손들을 나가르세트라는 도시 대표 상인으로 추대하였다(Tripathi 1981: 30-31).

38) 이전에도 남아시아에서 사원이나 모스크 등을 관리하는 기구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세트 아난지 칼얀지 페디와 같이 근대적인 정관을 발표한 기구는 20세기 초반까지 찾을 수 없다. 1880년 정관을 마련하게 된 계기로 다음 일화가 전해진다. 타쿠르와의 분쟁 중 페디가 청원서를 올리자 카티아와르 주재관은 이를 묵살하며 “실존 인물도 아닌 조합(trust)이 올린 청원서이므로 실존인물의 이름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대해 페디는 스스로 자이나교도들을 대변하는 존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정관을 준비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인준받았다(Desai 1983: 154-157).

39) 1880년 정관이 마련되었을 때, 세트 아난지 칼얀지 페디는 당시 아마다바드의 나가르세트였던 프레마바이 헤마바이(Premabhai Hemabhai)가 이끌고 있었다. 프레마바이는 산티다스 자베리의 후손이었으며 샤프트룬자야에도 큰 사원군을 후원하여 지었다. 데사이에 의하면 프레마바이는 첫 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 회의에서는 또한 산티다스의 후손만이 회장직을 역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였다(이 조항은 1912년 삭제되었다.) (Desai 1983: 157-158).

의 나가르세트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페디는 나가르세트가 전통적으로 페디의 수장을 겸임하였다는 사실 외에도 이 권한이 전체 회중(sangh), 즉 신상승배 백의파 자이나교도 공동체의 회중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주장하였다. 페디의 정관은 인도 전역의 백의파 자이나교도들이 이 권한을 합법적으로 페디에 부여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1880년 정관을 마련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때, 페디는 인도 서부뿐 아니라 인도 전역 103개의 도시에 거주하는 자이나교도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⁴⁰⁾ 물론 구자라트와 라자스탄 외의 지역에서 이에 답하여 참가한 자이나교도들의 수는 미미하였으나, 극소수의 참석만으로도 페디의 권한이 정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4. 근대적인 종교 정체성의 형성

페디의 정관을 마련하면서 인도 서부의 자이나교 공동체도 스스로를 보는 시각을 조정하게 되었다. 객체와 주체가 구체화되면서 그 관계까지 명료해졌던 것이다. 전통적인 자이나 문헌에서 관념적인 성지로 묘사되었던 샤프룬자야는 이미 오랜 기간의 법정 분쟁을 통하여 매우 구체적인 존재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샤프룬자야와 관련된 분쟁은 더 이상 나가르세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는 성지를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법적인 기구, 즉 페디가 해결할 문제였으며, 페디는 곧 신상승배 백의파 자이나교도들의 회중을 대변하였다. 샤프룬자야를 관리하는 주체 역시 평신도 개개인과 별 상관 없는 아마다바드의 거상들이 아니라 자이나교도 자신들이 권한을 부여한 합법적인 기구, 즉 페디였다. 그리하여 샤프룬자야와 페디, 그리고 자이나교도 공동체의 관계가 분명히 정립되었으며, 샤프룬자야의 운명은 공동체의 운명

40) Desai, 위의 책, 157-160. 정관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에는 천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이 중 23개의 도시에서 32명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회의에서 입안된 여덟 개의 조항 중 첫째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어 타쿠르와의 모든 협상은 세트 아난지 칼얀지 페디에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과 직결되었다. 샤프룬자야의 역사는 단순한 한 성지의 역사일 뿐 아니라 회중 전체, 즉 새롭게 구축된 자이나 공동체의 역사가 되었다. 유적 보고서나 역사서, 건축, 회화를 포함하는 샤프룬자야의 역사들은 19세기의 자이나 교도들이 스스로를 인식하며 남에게 보여주하고자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반영하게 되었다.

물론 이 과정을 통해 자이나교도 공동체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으로 통합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신상승배 백의파만을 대상으로 한 집단이었으며, 이 안에서도 다양한 계보와 학파는 유지되었다. 그러나 페디가 자이나 공동체를 대변하는 기구로 확립되면서 이 공동체는 외부 세계(영국 총독부 등을 포함하는 타자적 존재들)에 한 목소리를 가진 공동체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또한 페디가 합법적인 기구로 인정받으면서 식민 치하 종교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었다. 식민치하 인도 사회는 ‘근대 사회’로 이행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근대사회는 서구 개념에 따르면 세속적인 사회(secular society)였다. 세속적인 근대 사회에서 종교는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불과하며 공동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종교적 집단은 이와 같은 근대 사회에서 적극적·공식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즉 개개 자이나 교도들이 모인 공동체의 경우, 총독부와 같은 정치적 권위가 내린 명령에 반발하거나 불복종할 의지를 가질 수 없었으며 설령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표현할 합법적인 수단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즉 종교를 가진 존재로서의 개인을 대변할 수 있는 근대적인 기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세트 아난지 칼안지 페디가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페디의 일원들은 스스로 근대적인 정관을 마련함으로써 자이나 공동체를 근대 사회라는 이질적인 조직에 합법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근대적인 개념으로 종교와 세속적 사회가 분리되고 정립되면서 종교 공동체 역시 새로운 정체성을 띠게 되었다. 즉 종교의 영역만은 다른 영역의 침범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 것으로 존중받게 되었다(Dumont 1980: 316). 페디가 식민 통치하에서 자이나 정체성을 구축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담

당하면서 한동안 페디와 경쟁할만한 존재 역시 부재하였다.⁴¹⁾ 자이나 공동체는 페디에 공동체를 법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타자에게 전달하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물론 자이나 공동체의 다양성은 유지되었으며, 페디 외에도 다른 자이나교도, 또는 서구 학자 등 타자에게 자이나교도들의 모습을 전달하는 존재는 항상 남아있었다. 그러나 타자에게 보이는 자이나 공동체의 모습, 특히 샤프룬자야와 관련된 면면은 그 어떤 존재보다도 페디, 그리고 페디를 장악하였던 아마다바드 출신 거상들에 의해 구축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샤프룬자야에 대하여, 그리고 자이나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사실들이 상당 부분 19세기의 소유권 소송을 통하여 정립된 사실들임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샤프룬자야의 법정 분쟁 이후 일련의 사건을 보았을 때 페디는 신상승배 백의파 자이나교도들 사이에서 지도부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리고 샤프룬자야 외에도 인도 서부의 수많은 자이나 사원 유적 등을 관리하거나 보수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⁴²⁾ 이와 함께 근대적이며 합법적인 기구인 페디가

41) 당시 페디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 이유로 카리스마를 가진 뛰어난 승려가 부재하였다는 사실을 드는 학자도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산스크리트어와 프라크리트어 등에 능숙하며 뛰어난 설법 능력을 가진 승려들이 등장하면서 페디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코트와의 개인적인 교신.

42) 자이나 성지에 대한 안내 책자에 의하면, 세트 아난지 칼얀지 페디는 샤프룬자야 외에도 인도 서부의 중요한 자이나 성지 중 열 곳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라낙푸르(Ranakpur), 쿰바리아(Kumbhariya), 타랑가(Taranga), 기르나르(Girnar: 이는 반티랄 자인 디감바라 조합과 공유하고 있다), 하스타기리(Hastagiri: 이 역시 찬드로라이 종교 기관과 공유하고 있다), 우파리야라지(Upariyalaji), 밤즈(Vami), 세리산드 무찰라 마하비르지(Serishaand Muchala Mahavirji) 등이다(Tirth Darshan 2002). 이 외에도 아부산이나 라낙푸르의 유명한 자이나 사원을 보수하는 공사도 페디에서 주관하였으며(Batley 1920?), 인도 서부뿐 아니라 동부 비하르의 자이나 성지인 삼메트 시카라(Sammeta

자이나교도들을 대변함에 따라 자이나교 자체에 대한 인식도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할이나 근대적인 자이나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페디가 기여한 바를 논의한 글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 대신 샤프룬자야에서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역사들, 즉 샤프룬자야에 대한 서술에서 볼 수 있는 역사적 인식과 후원 경향, 건축, 회화가 변화한 모습,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공방을 통해서 자이나교도들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샤프룬자야가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 식민 통치하에서 자이나교도들은 새로운 공동체와 정체성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Śikhara)와 관련한 법정 공방에도 자문을 제공하였다(Desai 1983: 135).

참고문헌

- Batley, Claude (1920?) "Report on the Present State of and Schedule of the Principal Works Required to be Executed at the Ranakpur Jain Temples, Jodhpur State." Ahmedabad: n.p.
- Bose, Sugata and Ayesha Jalal (1998) *Modern South Asia: History, Culture, Political Economy*. New York: Routledge.
- Burgess, James (1869) *The Temples of Śatruñjaya, the Celebrated Jaina Place of Pilgrimage, near Palitana in Kathiawad, with Historical and Descriptive Introduction*. Bombay: Sykes and Dwyer.
- Campbell, James ed. (1989) *Gazetteer of the Bombay Presidency Volume I Part 1: History of Gujarat*. Reprint. Gurgaon, Haryana: Vipin Jain for Vintage Books.
- Cohn, Bernard S. (1996) *Colonialism and Its Forms of Knowledge: The British in Ind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mmissariat, M. S. (1931) "Part II: Shantidas Jawahari, the Great Jain Magnate of Gujarat in the 17th Century", in *Studies in the History of Gujarat: The Thakkar Vassonji Madhavji Lectures of the University of Bombay for the Year 1930-1931*. Bombay: Oxford University Press, 53-78.
- Commissariat, M. S. (1941) "Epigraphic and Other Records in Gujarat Relating to the Jain Saint Hiravijaya Suri," *Journal of the Gujarat Research Society* Vol. III, no. 3, 146-158.
- Cort, John E. (1990) "Twelve Chapters from the Guidebook to Various Pilgrimage Places, the Vividhatirthakalpa of Jinaprabhasuri," in Granoff, Phyllis ed., *The Clever Adulteress & Other Stories: A Treasury of Jain Literature*. Oakville: Mosaic Press.
- Cort, John E. (1992) "Śvetāmbara Mūrtipūjak Jain Scripture in a Performative Context," in Timm, Jeffrey R. ed., *Texts in Context: Traditional Hermeneutics in South Asi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71-194.
- Cort, John E. (2001) "The Intellectual Formation of a Jain Monk: A Svetambara Monastic Curriculum,"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29, no.3: 327-49.

- Desai, Ratilal Dipchand (1983) *Sheth Anandji Kalyanjini Pedhino Itibas (The History of the Anandji Kalyanji Pedhi)*. Gujarati. 2 vols. Ahmedabad: Sheth Anandji Kalyanji Pedhi.
- Dirks, Nicholas (1992) *Colonialism and Culture*.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Dumont, Louis (1980) "Nationalism and Communalism," in *Homo Hierarchicus: The Caste System and its Implicat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14-334.
- Flügel, Peter (1995) "The Ritual Circle of the Terapanth Svetambara Jains" in *Bulletin d'etudes Indiennes* 13-14 (1995), 117-176.
- Flügel, Peter (1999) "Jainism and the Western World: Jinmuktisuri and Georg Buhler and Other Early Encounters," *Jain Journal* 34, no. 1, 1-11.
- Gazetteer of the Bombay Presidency, Vol. IV Ahmedabad* (1879) Bombay: Central Government Press.
- Gazetteer of the Bombay Presidency, Vol. VIII Kathiawar*. (1884) Bombay: Government Central Press.
- Government of Gujarat ed., (1969) *Bhavnagar District: Gujarat State Gazetteers*. Ahmedabad: Government Printing.
- Granoff, Phyllis. (1999) "Medieval Jain Accounts of Mt. Girnar and Satrunjaya: Visible and Invisible Sacred Realms," *Journal of the Oriental Institute Baroda* vol. XLIX, no. 1-2, 143-170.
- Guha, Ranajit (1996) *A Rule of Property for Bengal: An Essay on the Permanent Settlement*.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Imperial Gazetteer of India Vol. XIX* (1908) Oxford: Clarendon Press.
- Indian Office Records IOR L/PS/10/1100.
- Indian Office Records IOR L/PS/359.
- Kim, Hawon Ku (2007) "Re-formation of Identity: The 19th-century Jain Pilgrimage Site of Shatrunjaya, Gujarat."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Luithle-Hardenberg, Andrea (2009) "The Pilgrimage to Shatrunjaya: Refining Shvetambara Identity," in Berger, P., R. Hardenberg, E. Kattner & M. Prager eds., *An Anthropology of Values: Festschrift in Honour of Georg Pfeffer*. Delhi: Manohar.

- Mehta, M.N. ed. (1928) *The Ruling Princes, Chiefs and Leading Personages in the Western India States Agency*. Rajkot: Western India States Agency Press.
- Richards, John (1993) *The Mughal Empir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ah, Natubhai (1998) *Jainism: The World of Conquerors*, vol. 1. Brighton, Portland: Sussex Academic Press.
- Spodek, Howard (1971) "On the Origins of Gandhi's Political Methodology: The Heritage of Kathiawad and Gujarat",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30 no. 2, 392-425.
- The Palitana Jain Case* (c. 1926) Ahmedabad: The City Printing Press.
- Tirth Darshan: Diviṅyakhanda* (2002) Hindi. Chennai: Shree Jain Prathana Mandir Trust.
- Tripathi, Dwijendra (1981) *The Dynamics of a Tradition: Kasturbhai Lalbhai and His Entrepreneurship*. New Delhi: Manohar.

원고접수일: 2010년 4월 1일

심사완료일: 2010년 5월 10일

게재확정일: 2010년 5월 31일

ABSTRACT

The Rise of a Modern Jain Community: 19th-century Legal Cases of a Sacred Site

Ku, Ha-won

Śatruñjaya, located in Gujarat, India,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ilgrimage sites for Śvetāmbara Mūrtipūjak Jains, who comprise the majority of Jains in western India. However, several aspects of the site, including the historiography, patronage, architecture, and painted maps that depict Śatruñjaya, suggest that the site acquired its current form only during the 19th century.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se changes can be linked to a series of legal cases related to the ownership of Śatruñjaya, which continued from 1820 to 1926. Due to the extremely public nature of the disputes, these legal case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Śvetāmbara Mūrtipūjak Jain community in western India. Especially, as the legal cases quickly shifted their focus to the definition and rights of ownership of Śatruñjaya, British concepts of ownership and rights were gradually accepted and appropriated by the Jain patrons throughout the 19th century. However, these concepts were part of an inherently contradictory foreign framework, based on a Western understanding of property, history, and religion. The acceptance of this alien framework caused severe changes in the ways that the Jains viewed Śatruñjaya and their own religion. New

investigations and studies were made of their religion as well as their traditional site, and this was led by a trust of Jain merchants who had managed Śatruñjaya. As a result, in spite of the diversity among Jains in India, Śatruñjaya provided a locus through which this community could express its own identity. This reflects the active role of the Jains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building their community, as well as the appropriation of Western concepts of religion and society in the re-formation of a religious identity.